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2 인문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카푸신 원숭이들을 너 달 동안 연구한 뒤, 에머리 대학의 프린스 드 발과 새러 브로스넌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 영장류는 원시적 정의감을 지녔고, 어떤 경우들엔 자신들의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저항한다. 그 발견은 정의가 혼육의 산물, 즉 부모들과 공동체가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진화되어온 특질임을 가리킨다. 그들은 누런 카푸신 원숭이들의 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카푸신 원숭이들은 무척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잘 협력한다고 알려진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들은 원숭이들에게 토큰들을 주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오이 한 조각과 맞바꾸어 토큰을 달라고 했다. 원숭이들은 처음엔 이 물물교환이 만족한 듯했고, 보상에 대해 토큰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숭이들을 불공정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사태는 정말로 흥미로워졌다. 그들은 한 원숭이에게 파트너가 훤히 보는 상황에서 달고 즙이 많은 포도를 주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파트너에게 포도가 아니라 전처럼 오이를 내밀었다. 그 원숭이는 오이를 물리쳤다. 연구자들은 원숭이 다섯 마리들에 대해서 다르게 변주된 실험을 50회 넘게 시도했고, 40%의 경우들에서 자멸적이고 반항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 원숭이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포도를 줌으로써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단계 진행시키자, 다른 원숭이들의 저항은 곱절로 늘어났다. 다섯 번 가운데 네 번꼴로 원숭이는 토큰을 넘겨주기를 거부하거나 오이를 물리쳤다. 때로 속이 상한 원숭이는 토큰을 실험실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영장류의 이러한 독선적 분개는 ‘사람의 행동은 매우 오래된 진화적 뿌리들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속이 상한 원숭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듯했고, 그들의 반응들은 그것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뜻 있는 얘기를 해준다. 따지고 보면,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유 없이 보상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공정감이 기본적 감정들만큼 원초적이고 그 둘이 오랜 진화 기간을 통해 함께 물려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규정이 소유물에서의 정의(justice)의 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소유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소유물을,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누구도 위의 1과 2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없다.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뿐이다. 즉, 어떠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모든 분배는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그리고 하나의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예를 들어 정직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획득한 상태-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예를 들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정의롭다.

(다)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 첫째, 개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다음의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기본권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교환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식품점 점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만약 이것이 정반대일 경우라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식료품 점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의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의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식품점 점원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이득을 주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게 한다.

(라) 기본소득제는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복지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복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 주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지급액은 연간 2072달러(약 230만원)였다. 2008~2009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과 2011~2012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에서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부결됐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다.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다.

[문제 1] (가)의 논지를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 (다)를 비교분석하시오. (500-600자, 40점)

[문제 2] 제시문 (나), (다) 중 보다 적절한 관점을 선택하여 제시문 (라)의 '기본소득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800-1,000자, 60점)